

2020 대입 10명 중 8명 수시로 뽑는다

수시 비중 역대 최고...학종 모집 비율도 소폭 증가 지역인재·고른기회전형 9000여명 확대...기회 넓혀

현재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정시모집 비율이 각각 77%, 22% 수준으로 정해졌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모집 비율과 저출산 여파로 전체 모집인원은 소폭 줄게 된다. 지역학생 입장에서 지역인재전형과 고른기회전형의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이 증가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2020대입, 수시 정시 8대 2...학종전형 증가=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교의 '202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을 1일 발표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866명으로 2019학년도(34만8834명)보다 968명 줄어든다. 모집 시기별로는 수시에서 전체 모집인원

의 77.3%인 26만8776명을 뽑는다. 수시 비율은 지난해보다 1.1%포인트 높아지고 선발인원은 2914명 늘어 역대 최대 규모다. 학종전형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진 8만5604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24.6%를 차지한다. 학종전형은 동아리 활동·봉사활동 등 다양한 비교과 영역을 종합적으로 보는 전형으로 기록 및 평가의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으나 광주·전남 학생들의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 관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인재전형·고른기회전형 비율 증가= '2020 대입'에서 지역인재 전형과 고른기회전형 비율이 늘어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지역인재의 대입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지역인재 전형은 지난

2018학년도 81개 대학에서 1만3299명(총 모집인원 대비 3.8%)을 뽑았는데, 2020학년도에는 2828명 늘어난 1만6127명(4.6%)을 뽑는다.

전남대는 지역인재 전형으로 2019학년도에 472명(의·치·한 48명)을, 2020학년도에는 563명(의학·치의학 18명)을 선발한다. 조선대는 2019학년도 159명(의학·치의학 89명)에서 2020학년도에는 486명(의학·치의학)으로 지역인재 전형 모집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동신대 역시 2019학년도 508명(한의학 10명)에서 2020학년도 845명(한의학 5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다만 3개 대학 모두 의학·치의학·한의학과 모집규모를 줄인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기초생활수급자·특성화고교졸업자 등을 배려하는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 및 선발비율도 확대된다. 2018학년도 모집규모는 4만306명

(총 모집정원의 11.4%)이던 것이 2020학년도에는 4만6327명(13.3%)로 늘어나게 된다. 대학별 논술 위주 전형 모집인원이 2018학년도 31개교 1만3120명에서 2020학년도 33개교 1만2146명으로 줄어드는 점도 눈에 띈다.

전남대는 2020학년도 모집인원을 3450명으로 하고 수시와 정시에서 각각 2532명, 918명을 뽑는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수시 669명, 정시 138명 등 807명을 모집한다. 조선대는 총 4756명을 모집하고 수시와 정시에서 각각 3735명, 1021명을 각각 선발한다. 호남대는 수시모집 1624명을 포함 총 1649명을 선발하고 광주대는 수시모집 1714명을 포함 총 1737명을 뽑는다. 동신대는 수시모집 1561명을 포함 총 1633명을 선발한다. 광주교대는 수시·정시에서 각각 236명, 118명씩 총 354명을 선발한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김호중 '오월길 역사기행' 광주 김호중 민주인권동아리 학생들이 1일 광주시 북구 국립5·18 민주묘지에서 5월 영령들에게 헌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오월길 역사기행' 프로그램의 하나로 5·18묘역을 참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아동·청소년 강간범 3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가해자 63.3%가 '아는 사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강요 및 알선 범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비율은 35%나 됐고, 강간범죄는 피해자가 아는 사람에게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2884명으로, 2015년보다 16.7% 감소했다.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761명(61.1%)으로 가장 많았다. 강간(22.4%), 성매수(6.0%), 성매매 알선(5.3%) 등이 뒤를 이었다. 강간과 강제추행 범죄자 수는 전년보다 각각 11.7%, 17.3% 감소했다. 그러나 성매매 강요와 알선 범죄가 각각 22%, 27% 늘었다. 성매매 강요 범죄자 수도 2014년 47명, 2015년 59명, 2016년 72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알선 범죄 역시 같은 기간 39명, 120명, 153명으로 증가했다.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는 메신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애플리케이션 이용 비율이 높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성매매 알선 가해자와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21.9세, 15.8세였다. 특히 강간범죄는 주로 집(46.6%)에서 밤 9시~오전 5시(49.1%)에 가족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63.3%)이 저질렀다. 가해자 2884명 중 117명(4.1%)이 보호관찰·집행유예 상태에서 다시 범행했다. 연령별로는 16세 이상 피해자가 44.7%(1760명)였고, 13~15세(32.2%), 7~12세(17.0%) 순이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아동학대 사망 땀 징역 최대 15년

아동을 학대해 크게 다치거나 숨지게 한 자에 대한 형량이 종전보다 가중된다. 숨지게 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15년, 다친 정도가 심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30일 8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 등 양형 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또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나 중상해를 저지른 경우를 '일반가중요소'로 삼아 현행보다 더 엄벌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1 해질 19:19 달뜨기 21:24 달지기 07:15

오늘은 '오리데이'
흐리고 비가 오다가 낮에 그치겠다.

광주	비온뒤 맑	18/22	보성	비온뒤 맑	15/21
목포	비온뒤 맑	16/19	순천	비온뒤 맑	17/22
여수	비온뒤 맑	16/20	영광	비온뒤 맑	16/20
나주	비온뒤 맑	17/22	진도	비온뒤 맑	16/20
완도	비온뒤 맑	17/22	전주	비온뒤 맑	17/21
구례	비온뒤 맑	16/22	군산	비온뒤 맑	16/20
강진	비온뒤 맑	17/22	남원	비온뒤 맑	17/22
해남	비온뒤 맑	16/21	홍산도	비온뒤 맑	12/16
장성	비온뒤 맑	17/21			

		오전		오후	
서해	안바다	남~남서	0.5~1.0	서~북서	1.5~2.5
남부	면바다	남~남서	1.5~2.5	서~북서	2.0~3.0
남해	안바다	남~남서	0.5~1.0	서~북서	1.0~2.0
서부	면바다(동)	남~남서	1.0~2.0	서~북서	2.0~3.0
	면바다(서)	남서~서	1.5~2.5	서~북서	2.0~3.0

식중독	관심
자외선	높음
미세먼지	보통

3(목)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10/19	10/23	11/25	16/20	14/22	15/23	14/25

30년 세월 뛰어 넘는 청년들의 대화

투어리스트, 오늘 최기혁 들불야학 대표 초청 토크쇼

1980년 20대 청년과 2008년 20대 청년이 만나 광주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다.

김충만 대표의 사회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최 대표, 전남대 5·18연구회 소속 김남주(23)씨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청년 시기를 가치있게 보내는 방법, 청년의 정치 참여, 39년 전과 현재의 청년 공통·차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하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한편, 지난 2016년 발족한 '투어리스트'는 40여명의 청년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년 강좌, 마을공동체 사업, 작은 음악회 등을 열고 있다. 문의 010-3070-9146. /김홍희기자 kimhy@kwangju.co.kr

여론조사 왜곡보다 인터넷신문 기자 고발

전남선관위, 115건 조치

인터넷신문에 민주당 군수 후보 전략공천설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고발 22건, 경고 93건 등 총 115건을 조치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이 제직하는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66주년

'남원의 봄'

대한민국을 예약하다

벚꽃로맨스 3. 31 ~ 4. 8 바래봉철쭉 4. 21 ~ 5. 20
 춘향제 5. 18 ~ 5. 22 봉화산철쭉 4. 28 ~ 5. 27